

하반기 5G 스마트폰 큰 장... 2200만대시장 삼성 선점

(올 전세계 5G스마트폰 판매 전망치)

삼성, 내달 美서 '갤노트10' 공개
'갤럭시 폴드' 등 5G 라인업 확대

LG, 'V50 씽큐' 해외 순차 출시
내년 애플 잠전시 시장 급성장

하반기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5G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급증해 판매량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5G 스마트폰은 220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시장으로 예측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 시장에서만 5G 스마트폰이 500만대 이상 팔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미국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



▲갤럭시S10 5G. /삼성전자



▲LG V50 씽큐. /LG전자

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국에서 구매 가능한 5G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S10 5G'와 'LG V50 씽큐' 뿐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하반기에도 시장 선점을 지속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은 중국이다. 화웨이·샤오미·오포 등 중국의 주요 업체가 5G 스마트폰을 예고하고 있는 만

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에선 출시 70일 만에 100만대의 5G 스마트폰이 판매되는 등 5G 스마트폰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는 삼성과 LG를 포함해 여러 글로벌 업체가 5G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에

서 '갤럭시노트10'을 공개한다. 같은 달 말이나 9월 초 출시가 예상된다. 출시가 미뤄진 '갤럭시 폴드'도 5G로 공개하면서 5G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하반기 5G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한 이후 주력 시장인 북미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호주 등 5G 통신환경이 구축되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 LG V50 씽큐를 순차 출시하고 있다. 5G 스마트폰에 특화된 '듀얼 스크린' 후속작도 준비 중이다.

모토로라, ZTE, 원플러스 등 글로벌 주요 업체도 하반기 5G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5G가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은 올해에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애플이 퀄컴과 특허 분쟁을 벌이다가 올해 4월 화해하면서 5G 모뎀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하지만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프 필드백 연구원은 "애플의 경우 올해 5G 출시 계획이 없어, 5G 아이폰은 2020년이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애플이 올해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면, 미국 5G 시장은 현재 전망치보다 적어도 6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아이폰 5G가 나오면 5G 스마트폰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 강경수 애널리스트는 "5G의 경우 글로벌 표준이 있기 때문에 4G LTE보다 확장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통신사들은 모두 12개월 내에 론칭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네트워크 배치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2019 캠핑&피크닉 페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캠핑&피크닉 페어 서머마켓'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캠핑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5G 단말기, 해외 진출 수월해진다...국내서 국제공인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 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기업이 단말기를 수

출하려면 이 시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테스트베드가 마련되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

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4G 인증 때보다 60% 저렴한 2억1600만 원에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TTA는 국제공인 인증 전 사전 테스트를 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해준다.

/연합뉴스

韓 모바일인터넷속도 세계 1위... "5G 효과"

5세대(5G) 이동통신이 국내에서 상용화된 이후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가 크게 증가하며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Ookl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76.74Mbps로 조사대상 1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노르웨이(67.93Mbps)는 9개월 만에 2위로 밀려났다.

전 세계 평균치는 27.22Mbps로 집계됐다.

지난 3월 54.89Mbps로 6위에 머물렀던 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4월 들어 16% 증가한 63.81Mbps를 기록하며 3위로 뛰었고, 한 달 만에 20.2%나 더 가속하며 1위에 올랐다. 세계 14위에 머물렀던 1년 전보다는 79.7% 빨라졌다.

지난 4월 3일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우클라도 이를 5G 효과로 진단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승진자 절반 이상 '여성'

초급관리자에 여성 53.6% 임명 첫 女 보험재정국장 등 핵심보직

근로복지공단(이사장삼경우)은 이달 시행한 2019년 하반기 3급(차장)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84명 중 45명(53.6%)을 여성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3급 차장은 초급관리자로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하급자 사이의 가교역할 등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공단은 앞서 지난 1월 시행한 여성부장승진(53%)에 이어 이번 인사로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시정해 사회형평적 인사실현'이라는 국정과치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본부 핵심보직인 보험재정국장, 전략기획부장 등에 여성간부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한용수 기자 hys@

SK매직 "日 린나이 제치고 1위 고수" 업계, 반일감정 고조시기 맞춰 견제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으로 잘 알려진 린나이코리아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유탄을 맞고 있다.

100% 일본계 기업인 린나이코리아를 놓고 최근의 반일 감정을 틈타 관련 업계에서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더욱 본격화될 경우 40년 넘게 국내에서 쌓아올린 이름값에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14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인 SK매직은 최근 가스레인지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토종기업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내 가스레인지 시장을 연 일본기업 린나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SK매직이 이 참에 경쟁사를 완전히 제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1974년 설립한 린나이코리아는 '일본국 린나이코퍼레이션'이 97.7%, '린나이 홀딩스'가 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일본 회사다.

설립 이후 린나이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가스레인지를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

Rinnai

해왔다. 80년대 당시 린나이 가스레인지는 주부들의 '꿈의 아이템'이었을 정도로 명성을 날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스레인지 시장은 연간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스레인지 시장을 개척했던 린나이코리아는 당시 제품 출시 후 줄곧 시장에서 1위를 달려왔다. 그러다 3~4년 전부터 SK매직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시장 1위인 SK매직의 점유율은 40%대 초반, 2위인 린나이코리아는 30%대 후반으로 근소하게 차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그룹 계열인 동양시멘트 가전사업본부에서 출발해 동양매직, 그리고 지금은 SK그룹 계열이 된 SK매직은 설립 초기 미국 매직셰프사의 가스오븐레인지 등을 들여와 국내 판매를 시작한 후 가스레인지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관련 분야에서 린나이코리아와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지금은 두 회사가 전체의 8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1·2위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 시장에선 대기업인 LG전자와 파세코 등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파세코는 삼성전자, 코웨이, 한샘 등에 빌트인가전기기를 납품하는 동시에 창문형 에어컨, 서큘레이터, 난로 등 생활·계절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

소기업이다.

린나이코리아는 가스레인지 외에 가정용 보일러 분야에서도 '톱 3'에 올라 있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1·2위로 시장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보일러 시장에서 3위인 린나이코리아를 넘볼 회사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린나이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3251억원의 매출과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직전년도엔 매출 3501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일본기업 린나이'를 적극 견제하고 나선 SK매직은 지난 2016년 말 매직홀딩스에서 SK네트웍스로 주인이 바뀌면서 사명도 동양매직에서 SK매직으로 변경했다. SK네트웍스가 지난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린나이코리아가 일본계 회사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국에서 45년 넘게 브랜드 명성을 쌓아올린 터여서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반일 감정이 제품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린나이코리아는 2017년 초 당시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론이 들끓자 이후 구글지도로 바꿔 현재는 동해로 표기해 놓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